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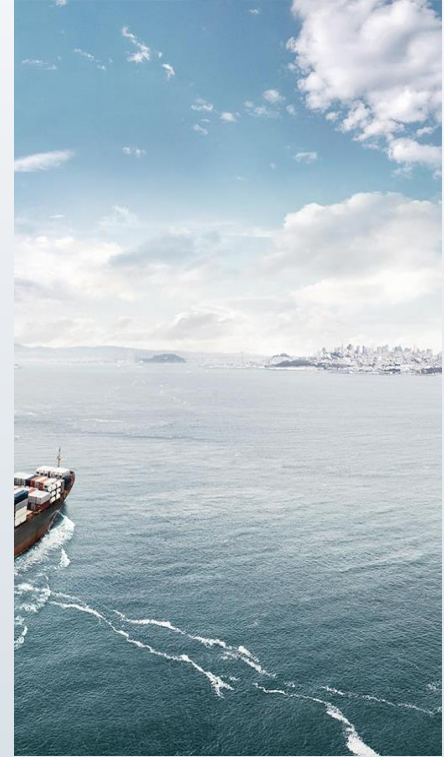


STL MARKET REPORT

Weekly Focus No.195

Updated April 17, 2018

The STL Market Report covers major issues affecting the world S&P market and provides an outlook for the market developments. The report provides a detailed analysis of key developments impacting S&P market trends.



Contents

Market Overview	1
Issue & Trend	3
Bulk Carrier	9
- BC Sales Report	
Tankers	13
- Tanker & Container Sales Report	
Demolition	17
Key Indicators	19
Useful Information	21
Contact Information	23

** 본 자료는 각종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내, 외신 자료와 언론보도를 종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법적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I . MARKET OVERVIEW

1. 신조선 시장동향

현대상선의 대형 컨테이너 발주 소식에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한진중공업 등이 수주 기대에 부풀어 있다. 12일 현대상선은 2만 TEU 이상급 12척과 1만 4천 TEU급 8척 등 컨테이너선 20척을 새로 발주하기로 결정하고 조선 3사와 한진중공업에 제안요청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상선은 새로 건조하는 배를 2020년부터 아시아-북유럽 노선에 투입하기를 고려하고 있으며, 여러 조선소에 초대형 컨테이너선을 나눠서 발주함으로써 인도 지연에 따른 위험성을 줄이려고 할 것으로 예상된다.

런던의 조디악(Zodiac Maritime)이 현대중공업에 14,000 TEU 컨테이너선 5척을 추가 발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디악은 지난해 11월 현대중공업과 12,000 TEU 컨테이너선 4척의 신조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포함 되어있던 추가 발주 옵션을 확정 한 것으로 파악된다.

2. 벌크선 시장동향

BDI가 900 포인트대로 떨어진지 1주일만에 다시 1,000 포인트를 회복하긴 했지만, 미중 무역갈등으로 인해 운임시장이 위축된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중고벌크선가는 몇 주째 큰 변화없이 유지되고 있지만 운임시장의 약세에 바이어들이 주춤하는 듯 하다.

수프라막스 벌크선 "AQUARIUS OCEAN" (53,478 DWT, BLT 2005 IMABARI)은 1,030만 달러에 거의 매각단계에서 계약이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비슷한 선령의 76K 파나막스 벌크선 2척이 매각되었다. "DOUBLE PROSPERITY" (76,633 DWT, BLT 2005 IMABARI)가 입거검사(DRY-DOCK)기한을 5월로 앞두고 1,250만 달러에 매각되었고, 선령이 1년 적은 "MADELEINE" (76,561 DWT, BLT 2006 IMABARI)이 1,425만 달러에 매각되었다. 한 주 앞서 매각된 "DR BRAVO" (76,800 DWT, BLT 2005 SASEBO, DD DUE 07/2018)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비교적 큰 사이즈의 핸디벌크선들이 매각되었다. "WESTERN BALTIC" (38,800 DWT, BLT 2015 JIANGSU HANTONG)이 1,600만 달러에 매각되었고, 35K 자매선 "NORDIC RIGA/ NORDIC VISBY/ NORDIC STOCKHOLM" (35,052 DWT BLT 2010 NANTONG)이 척당 925만 달러에 노르웨이바이어에게 매각되었다.

I . MARKET OVERVIEW

3. 탱커선 시장동향

탱커선 운임시장은 여전히 침체상황이 계속되고 있지만 중고선 거래는 약간 살아난 듯하다. 특히 MR 탱커선 부문에 거래량이 집중되었다. 2009 년산 MR 탱커선 HIGH ENTERPRISE" (45,967 DWT, BLT 2009 SHIN KURUSHIMA) 와 "SILVER EXPRESS" (47,401 DWT, BLT 2009 ONOMICHI)가 척당 1,650 만 달러에 중국 SHANDONG SHIPPING 으로 매각되었다. 또한 "STAR EXPRESS" (45,838 DWT, BLT 2005 SHIN KURUSHIMA)이 그리스바이어에게 1,120 만 달러에 매각되었다

4. 해체선 시장동향

해체선 시장에 선박공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거래량은 제한적이다. 아프리카막스 탱커선 "ECOMASTER" (15,845 LDT, BLT 1977)이 그리스 PIRAEUS 에서 딜리버리 조건으로 LDT 당 USD 300 에 매각되며 낮은 선가를 보였다.

높은 가격에 매각되었던 탱커선 상당수가 방글라데시 치타공에 속속 도착하고 있지만, 최종 인도가 지연되는 경우가 나오고 있다. 로컬해제업자들이 LC(신용장)개설 문제등을 이유로 캐쉬바이어와 선가 재협상을 시도하는 것이다. 해체선가가 하락하면서 우려되던 상황이 실제로 나오고 있다.

파키스탄은 탱커선 수입재개에 대한 PSBA(Pakistan ship breakers' association)와 정부간의 최종합의가 지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해체선시장을 더욱 압박하고 있다. 라마단이 시작되는 5 월 중순전까지 파키스탄의 탱커선 수입재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선가하락은 더 커질 것이다..

II . ISSUE & TREND

1. 현대상선 발주 컨선 20 척, 누구 품으로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한진중공업이 현대상선이 발주하는 최대 20 척에 달하는 컨테이너선 수주전에 나서 경합을 벌인다. 이번 수주전은 극심한 일감 가뭄 속에 나온 소식인 만큼 치열한 수주경쟁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4 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상선은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조선빅 3와 한진중공업에 컨테이너선 발주를 위한 제안요청서(RFP, Request for proposal)를 발송했다. 발주 척수는 2만 TEU급 컨테이너선 12척과 1만 4,000TEU급 8척 등 총 20척에 달한다. 현대상선은 이들 선박을 오는 2020년까지 순차적으로 인도받는다. 이후 아시아~북유럽 노선에 2만 TEU급 컨테이너선을, 미주동안 노선에 1만 4,000TEU급 컨테이너선을 각각 투입할 예정이다.

현대상선이 대규모 컨테이너선 발주를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 한진중공업 등의 관심은 뜨겁다. 일감부족 현상이 몇년간 지속돼 오면서 빅 3는 물론 어느 조선소가 됐건 일감확보가 절실하기 때문이다.

이번 수주전에서는 지난 2010년 이후 지난해까지 현대상선이 발주한 대부분의 선박을 수주한 대우조선이 선박을 수주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케케묵은 '셀프수주' 논란이 일고 있는 등 경쟁이 치열한 만큼 결과는 쉽사리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대우조선은 지난해 9월 현대상선으로부터 30만 DWT급 VLCC 5척을 수주했다. 앞서 일각에서는 현대상선이 대주주(산업은행)가 같은 대우조선에 발주했다는 시각이 제기된 바 있다. 하지만 당시에 도 빅 3 모두 VLCC 수주전에 참여했었다.

이에 앞서 지난 2011년 현대상선으로부터 1만 3,000TEU급 컨테이너선 5척을 수주한 대우조선은 2013년에는 영국 조디악(Zodiac)으로부터 1만 TEU급 5척을 수주했는데 이들 선박은 현대상선에 용선됐다.

현대중공업의 경우 대우조선 이전까지 현대상선이 발주한 선박의 거의 대부분을 독차지 했으나 양사의 관계가 요원해지면서 현대상선으로부터는 선박을 수주하지 못했다.

지난 2011년 현대상선은 정관변경을 통해 우선주 발행한도 확대를 추진했으나 당시 주주총회를 통해 주요 주주인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범현대가가 '주주가치 훼손'을 이유로 반대하며 부결시킨 바 있다.

II . ISSUE & TREND

올해 빅 3 중 유일하게 컨테이너선을 수주한 삼성중공업의 수주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으며, 한진중공업의 경우 필리핀 현지법인인 수빅조선소를 통해 컨테이너선 건조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 대비 낮은 인건비로 이익 확보에 있어 유리할 것으로 보이나, 건조 실적 등을 따져보면 빅 3 가 다소 유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클락슨에 따르면 1 만 5,000TEU 급 초대형 컨테이너선의 경우 대우조선(44 척)이 가장 많은 인도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삼성중공업 19 척, 현대중공업이 16 척, 한진중공업 수빅조선소가 1 척이다.

현대상선은 이들 4 개 조선사 중 발주를 위한 의향서(LOI)를 체결한 조선소와 향후 발주할 신조선에 대해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규제에 맞춰 스크러버(Scrubber)를 장착할지 기존 벙커유와 LNG 도 연료로 사용하는 이중연료(dual fuel) 선박 건조할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2 월 기준 1 만 3,000TEU 급 컨테이너선은 1 억 800 만달러에 발주되고 2 만 TEU 급 컨테이너선은 1 억 5000 만달러 수준에 발주 협상이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하면 이들 컨테이너선의 총 발주금액은 한화로 3 조원 수준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LNG 추진 선박으로 건조시 척당 건조비용은 최소 1,000 만~1,500 만달러 늘어나게 된다..

2. 한국 조선, 해양플랜트 수주 연이어 고배

세계 1 위를 자부하던 한국 조선이 연말에 해양플랜트 수주전에서 고배를 마셨다. 수주가 유력했던 프로젝트들은 가격경쟁력 등을 이유로 싱가포르와 중국 등 신흥국에 빼앗겼고, 일부는 발주 국가의 산업 활성화를 위해 자국 조선사로 일감이 넘어갔다. 현대중공업은 해양플랜트 일감 부족으로 하반기 야드가 바닥을 드러낼 전망이다.

노르웨이 국영 석유사 스타토일은 지난 5 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요한 스베드럽(Johan Sverdrup) 2 단계 프로젝트에 투입할 해양플랜트의 상부 구조물(탑사이드) 투자의향서(LOI)를 자국 조선사 아이벨(Aibel)과 맺었다고 밝혔다. 발주 규모는 1 조원가량이다.

한국 조선업계는 이와 함께 수주가 유력했던 브리티시석유회사(BP)의 토르뚜(Tortue) 가스전 개발 프로젝트에 투입될 '부유식 원유 생산·저장·하역설비(FPSO)' 수주전에서도 중국에 밀린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이 수주 경쟁에 뛰어들었으나, 중국 코스코와 프랑스 테크닉 FMC 컨소시엄의 가격경쟁력에 밀렸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강한구 현대중공업 대표이사는 지난 9 일 담화문에서 "사활을

II . ISSUE & TREND

걸고 수주에 많은 공을 들여온 프로젝트마저 낮은 인건비를 바탕으로 가격에서 우위를 보인 중국에 넘어갔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삼성중공업이 지난해 2건의 해양플랜트를 수주한 것을 제외하면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14년을 끝으로 수주 실적이 전무하다. 지난해 말 스타토일의 FPSO와 로열더치셀의 '부유식 해양설비(FPU)' 수주전은 신흥국 싱가포르의 셉코프마린에 일감을 빼앗겼다.

당장 현대중공업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오는 7월 말 해양플랜트 야드가 바닥을 드러낸다. 당분간 해양플랜트사업본부 전체가 할 일이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지난해 11월에는 해양플랜트 부지 일부를 계열사 현대미포조선에 매각하기도 했다. 현대중공업은 우선 2,400여명의 희망퇴직을 통해 구조조정에 나섰다. 야드는 블록 제작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수주잔량이 1개 프로젝트만 남은 대우조선해양도 전체 매출 비중에서 해양플랜트 사업을 점차 줄여나갈 계획이다. 인력도 상선 제작 등으로 전환을 검토 중이다. 삼성중공업은 수주잔량이 7개 프로젝트로, 그나마 여유가 있는 상황이다.

한때 해양플랜트는 조선업계의 미래 먹거리로 불렸다. 하지만 저유가 기조에 발주량이 급격히 줄었고, 어렵게 수주한 프로젝트는 잦은 설계 변경으로 수익성 악화의 덫이 됐다. 특히 중국과 싱가포르 등 신흥국 추격에 무리하게 확장했던 해양플랜트 야드 및 설비와 인력 등은 부메랑이 됐다.

3. 한은 "미중 무역갈등 당분간 원자재값 출렁"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으로 주요 원자재 가격이 당분간 출렁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은 15일 '미·중 무역갈등이 주요 국제원자재 가격에 미치는 영향' 등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양국 갈등이 추세적 가격 하락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 게다가 세계 경제 성장세가 지속되면서 원자재 수요가 견조한 상황으로 미·중이 합의에 도달할 경우 원자재 가격도 점차 안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기관의 올해 원자재 가격 전망은 세계은행이 전년보다 0.6%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국제통과기금(IMF)은 0.5%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알루미늄과 대두 등에 관세가 예정대로 부과되고 무역 갈등이 다른 분야로 확대되면 가격하락세가 더욱 거세질 수 있다. 알루미늄은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던 물량이 시장에 나올 경우 공급과잉 우려가

II . ISSUE & TREND

부각될 수 있다. 최근 중국산 알루미늄과 미국산 대두는 양국 관세부와 품목에 포함되며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 지난 6일 기준으로 알루미늄 가격은 2월 15일 대비 6.6% 내렸다.

양국 갈등으로 인한 글로벌 교역과 성장의 둔화 및 이로 인한 원자재 수요 감소, 금융시장 위험회피성향 강화에 따른 원자재 투자심리 위축 우려 등으로 그 외 비철금속 가격도 하락했다. 같은 기간 니켈은 6.3%, 구리는 5.8% 하락했고 재고수준 증가 요인이 겹친 아연은 10.0% 떨어졌다.

곡물도 3월 들어 가뭄이 완화된 데다가 무역갈등 우려가 가세하면서 하락했다. 중국이 미국산 대두 관세부과를 발표한 4일 당일에만 대두 가격과 S&P 곡물지수가 각각 2.2%, 1.5% 떨어졌다.

원유 가격도 지난 1일 중국의 맞대응 이후 6일까지 브렌트유 기준 3.4% 하락했다. 한은은 미중 무역갈등이 당분간 지속되겠지만 전면전으로 악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전망했다.

4. 외환시장 개입 어려워져...원화 강세 빨라질 듯

“2017년 11월과 올해 1월 원화 강세를 완화하기 위해 외환시장에 개입한 사실이 확실하게 드러났다. 한국의 외환 관행을 계속해서 면밀히 감시할 것이다.”

13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가 발표한 2018년 상반기 환율정책 보고서의 내용이다. 미국은 매년 4월과 10월 발표하는 이 보고서를 통해 주요 교역국의 외환시장 정책을 평가한다. 미국은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의 외환시장 개입 시기와 규모를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다 알고 있으니 빨리 조치하라’는 압력이다. 구체적인 개선 방안도 처음으로 적시했다. “환율 개입 내용을 투명하고 시의적절하게 보고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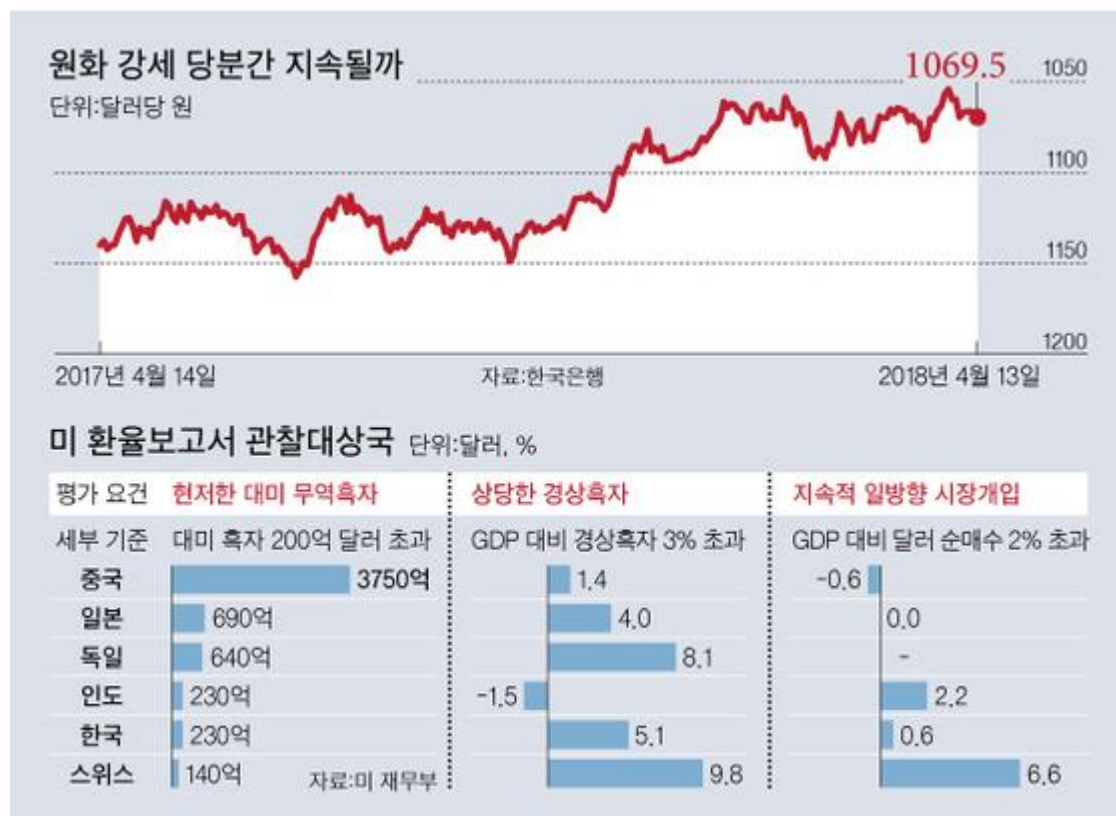
다행히 ‘심층분석대상국(환율조작국)’ 지정은 피했다. 미국의 교역촉진법은 ▶대미 무역흑자 200억 달러 초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흑자 3% 초과 ▶GDP 대비 외환시장 달러 순매수 2% 초과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다. 세 가지 중 두 개를 충족하거나, 대미 무역흑자 규모와 비중이 과도한 경우엔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분류한다. 미국은 기존 5개국(한국·중국·일본·독일·스위스)에 인도를 추가해 6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했다.

II . ISSUE & TREND

한국은 대미 무역흑자, GDP 대비 경상흑자 3% 초과 요건에 따라 관찰대상국에 포함됐다. GDP 대비 외환시장 달러 순매수 비중은 0.6%로 기준치에 못 미쳤다. 당국이 GDP 의 0.6%만큼 달러를 사들여 원화 강세를 막았다는 의미다.

정부는 미국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했다. 달러를 사고판 내용을 사후에 공개하는 방법이다. 미국과 국제통화기금(IMF)이 권고하는 방안이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건 한국뿐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 및 IMF-세계은행(WB) 춘계회의에 참석한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와 만나는 이 자리에서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에 대한 협의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김 부총리는 “공개 주기는 나라마다 일별·월별·분기별로 다르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가입했지만 6개월 단위로 공개하는 곳도 있다”고 말했다.



II . ISSUE & TREND

현재 미국은 TPP 복귀를 검토 중이다. TPP 는 애초 미국 주도로 시작됐다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탈퇴 선언 이후 나머지 11 개국만 참여했고,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으로 이름을 바꿨다. 한국도 상반기 중 CPTPP 가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인데, 미국이 복귀하면 선택의 폭은 크지 않다. 이렇게 되면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도 TPP 기준을 준용할 가능성이 있다.

2015 년 체결된 'TPP 회원국 거시정책 당국의 공동선언'에는 환율 정책에 관한 합의가 포함돼 있다.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분기별'로 공표하고, 외환보유액과 자본 유출입 등을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내용이다. 예외는 있다.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등은 회원국과의 합의를 통해 반기 단위로 공개하고 있다.

시차도 문제지만 공개 기준을 매수·매도 총액으로 할 것인지, 순매수액으로 할 것인지도 고민거리다. TPP 공동선언문에 따르면 총액이 기준이다. 정규돈 국제금융센터장은 "한국은 수출입 비중이 크고, 경제 개방성도 높다"며 "정부의 개입 규모와 전략을 너무 자세히 공개하면 투기 세력의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당장 원화가치 움직임도 걱정이다. 지난해 4 분기까지만 해도 원화가치는 달러당 1,100 원대를 유지했다. 그러나 올 1 분기 평균 1,072.32 원으로 상승했고, 4 월 13 일엔 달러당 1,069.5 원에 거래를 마쳤다. 원화 강세는 양날의 칼이다. 수입 물가가 떨어지면 내수 진작에 도움이 된다. 그러나 수출엔 부담이다. 원화가치가 급하게 오르면 수출 기업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원화가치가 1% 상승하면 수출은 0.51% 감소한다. 정부로선 원화 강세 속도를 최대한 늦추고 싶지만 미국의 압박에 미세조정조차 부담스러운 상황이 됐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적절한 시기에 정부가 개입하지 못하면 원화 강세가 더 가팔라질 수 있다"며 "중요한 심리적 저항선인 1,050 원이 무너지면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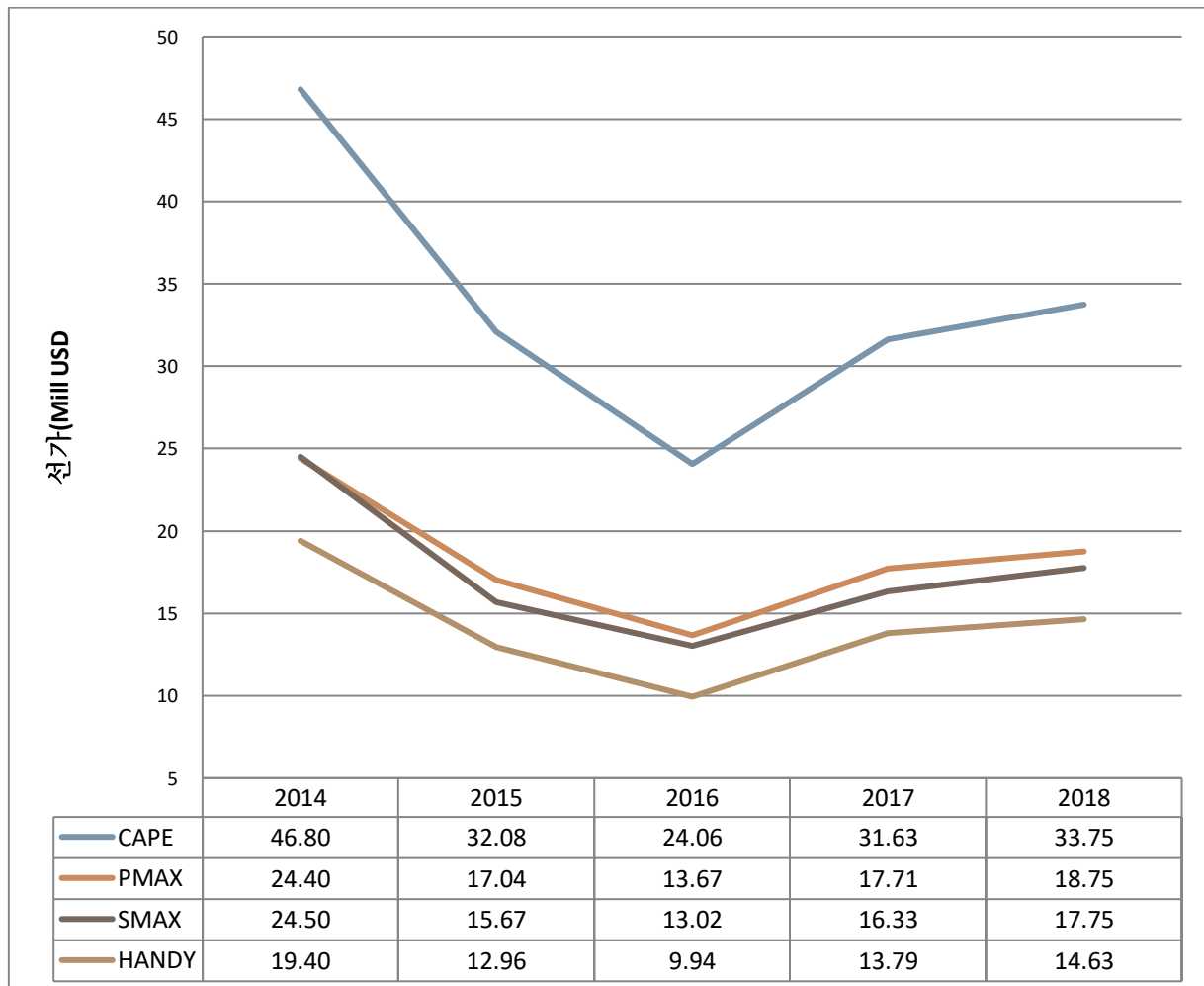
III. BULK CARRIER

(◆선령 5 년기준, Million USD, 증감율 : 전년도 대비,%)

연평균 선가	2014	2015	2016	2017	2018
Capesize 180K	46.80	32.08	24.06	31.63	33.75
	28.81%	-31.45%	-24.99%	31.43%	6.72%
Panamax 76K	24.40	17.04	13.67	17.71	18.75
	13.27%	-30.16%	-19.80%	29.57%	5.88%
Supramax 56K	24.50	15.67	13.02	16.33	17.75
	14.84%	-36.04%	-16.91%	25.44%	8.67%
Handysize 32K	19.40	12.96	9.94	13.79	14.63
	9.04%	-33.20%	-23.32%	38.78%	6.04%

□ BC 연평균 선가 - 선령 5 년 기준

(◆선령 5 년기준, Million US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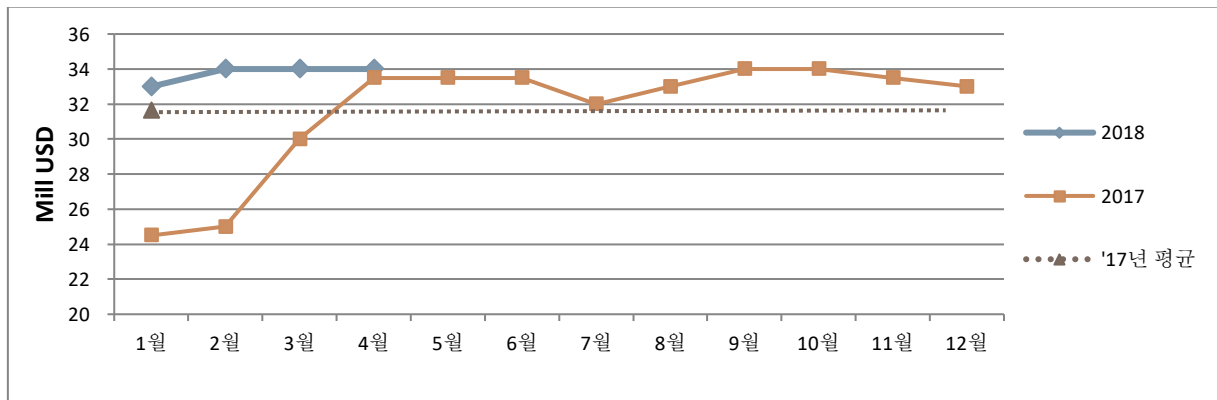




III . BULK CARRI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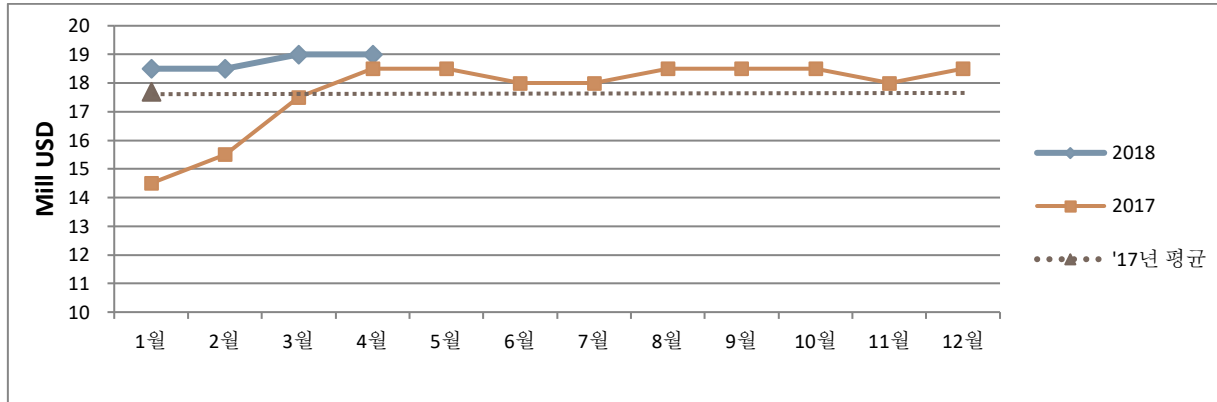
구분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평균	
2018	CAPE 180K	선가	33.00	34.00	34.00	34.00			33.75
		전월대비	0.0%	3.0%	0.0%	0.0%			-
		전년대비	34.7%	36.0%	13.3%	1.5%			6.7%
	PMAX 76k	선가	18.50	18.50	19.00	19.00			18.75
		전월대비	0.0%	0.0%	2.7%	0.0%			-
		전년대비	27.6%	19.4%	8.6%	2.7%			5.9%
	SMAX 56k	선가	17.50	17.50	18.00	18.00			17.75
		전월대비	0.0%	0.0%	2.9%	0.0%			-
		전년대비	20.7%	16.7%	12.5%	5.9%			8.7%
	HANDY 32k	선가	14.00	14.00	15.00	15.50			14.63
		전월대비	0.0%	0.0%	7.1%	3.3%			-
		전년대비	7.7%	3.7%	11.1%	10.7%			6.0%
2017	CAPE	24.50	25.00	30.00	33.50	33.50	33.50	31.63	
	PMAX	14.50	15.50	17.50	18.50	18.50	18.00	17.71	
	SMAX	14.50	15.00	16.00	17.00	17.00	16.50	16.33	
	HANDY	13.00	13.50	13.50	14.00	14.00	14.00	13.79	

□ Cap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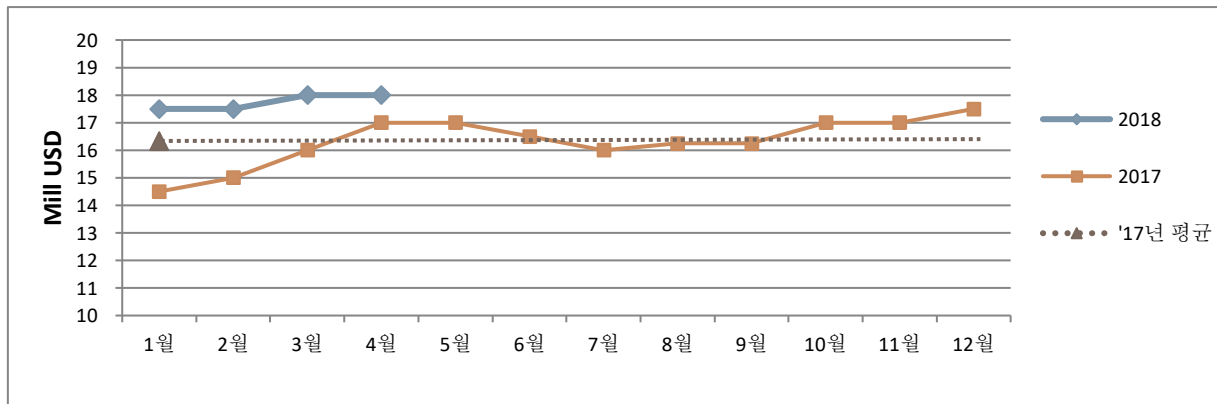


III . BULK CARRI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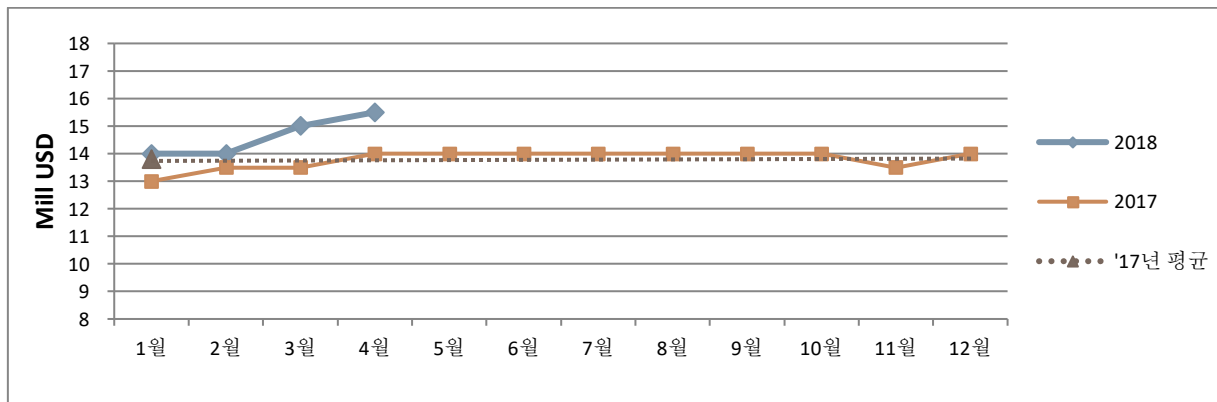
□ Panamax



□ Supramax



□ Handy





III . BULK CARRIER

III-1. Bulk Carrier Sales Report

TYP E	VESSEL	DWT	BLT	YARD	M/E	GEAR	PRICE	REMARKS
BC	DOUBLE PROSPERITY	76,633	2005	JAPAN	B&W		12.5	Undisclosed buyer
BC	MADELEINE	76,561	2006	JAPAN	B&W		14.25	USA buyer
BC	AZURIT	56,771	2012	CHINA	B&W	C 4x30t	12.4	Chinese buyer
BC	TOP TRADER	52,145	2001	JAPAN	B&W	C 4x30t	8.5	Undisclosed buyer
BC	WESTERN BALTIC	38,747	2015	CHINA	B&W	C 4x30t	16	Undisclosed buyer
BC	NORDIC STOCKHOLM	35,052	2010	CHINA	B&W	C 4x30.5t	9.25	
BC	NORDIC VISBY	35,052	2010	CHINA	B&W	C 4x30.5t	9.25	Norwegian buyer
BC	NORDIC RIGA	35,052	2010	CHINA	B&W	C 4x30.5t	9.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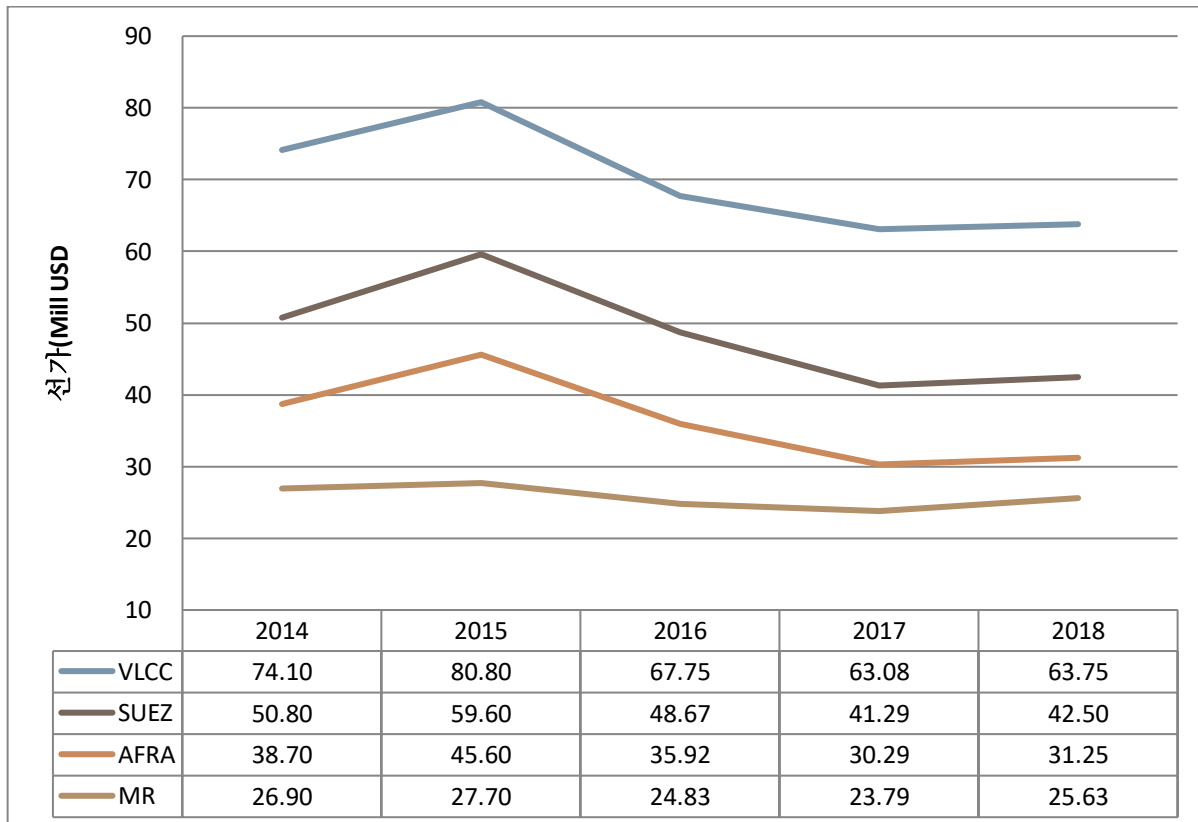
IV. TANKER

(◆선령 5 년기준, Million USD, 증감율 : 전년도 대비,%)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VLCC 310K	74.10 32%	80.80 9%	67.75 -16%	63.08 -7%	63.75 1.1%
Suezmax 160K	50.80 27%	59.60 17%	48.67 -18%	41.29 -15%	42.50 2.9%
Aframax 105K	38.70 33%	45.60 18%	35.92 -21%	30.29 -16%	31.25 3.2%
MR 47K	26.90 2%	27.70 3%	24.83 -10%	23.79 -4.2%	25.63 7.7%
Chemical Tanker IMO II 13K	13.00 9%	12.60 -3%	13.92 10%	12.42 -10.8%	12.56 1.2%

□ TANKER 연평균 선가 - 선령 5 년 기준

◆선령 5 년기준, Million USD, 증감율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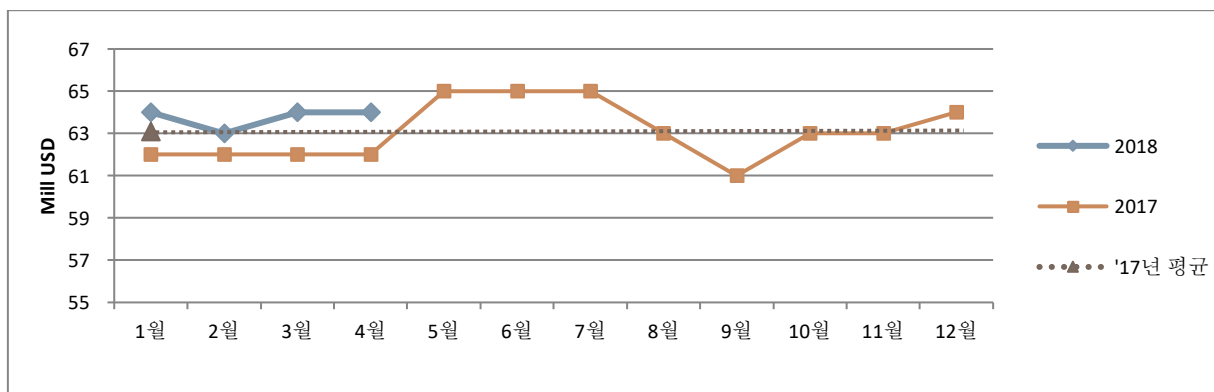




IV. TANK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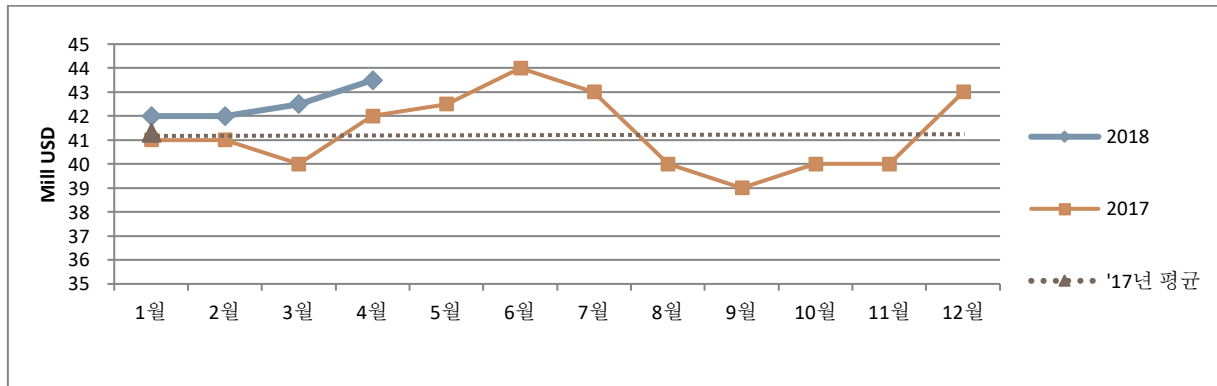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평균	
2018	VLCC 310K	선가	64.00	63.00	64.00	64.00			63.75
		전월대비	0.0%	-1.6%	1.6%	0.0%			-
		전년대비	3.2%	1.6%	3.2%	3.2%			1.1%
	SUEZ 160K	선가	42.00	42.00	42.50	43.50			42.50
		전월대비	-2.3%	0.0%	1.2%	2.4%			-
		전년대비	2.4%	2.4%	6.3%	3.6%			2.9%
	AFRA 105K	선가	32.00	30.00	31.00	32.00			31.25
		전월대비	0.0%	-6.3%	3.3%	3.2%			-
		전년대비	6.7%	0.0%	8.8%	6.7%			3.2%
	MR 47K	선가	25.00	25.00	26.00	26.50			25.63
		전월대비	0.0%	0.0%	4.0%	1.9%			-
		전년대비	11.1%	11.1%	15.6%	10.4%			7.7%
CHEM IMO2 13K	선가	13.00	12.50	12.50	12.25			12.56	
	전월대비	0.0%	-3.8%	0.0%	-2.0%			-	
	전년대비	6.1%	4.2%	-2.0%	-2.0%			1.2%	
2017	VLCC	62.00	62.00	62.00	62.00	65.00	65.00	63.08	
	SUEZ	41.00	41.00	40.00	42.00	42.50	44.00	41.29	
	AFRA	30.00	30.00	28.50	30.00	31.00	31.00	30.29	
	MR	22.50	22.50	22.50	24.00	25.00	25.00	23.79	
	CHEM	12.25	12.00	12.75	12.50	12.75	12.50	12.42	

VLCC-310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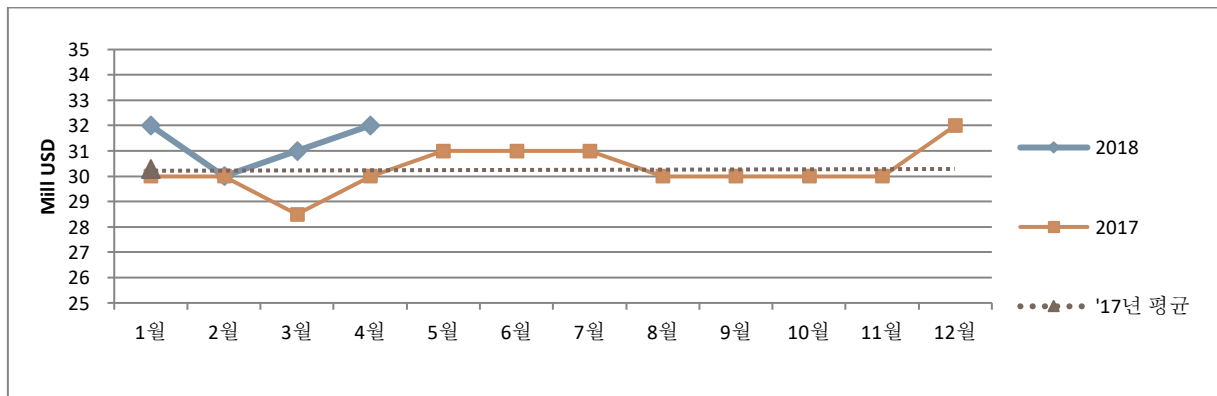


IV. TANK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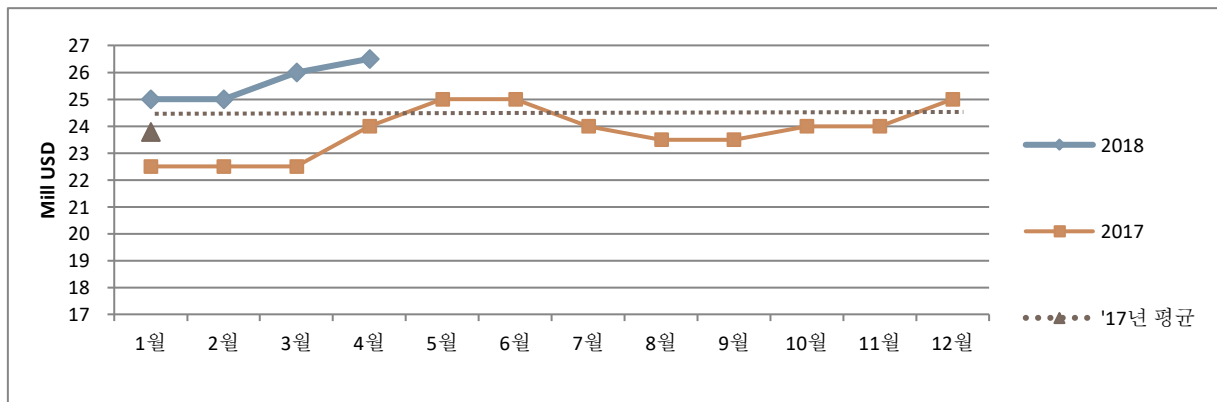
□ SUEZMAX-160K



□ AFRAMAX-105K



□ MR-47K



IV. TANKER

IV-1. Tanker Sales Reported

1) TANKER

TYPE	VESSEL	DWT	BLT	YARD	M/E	IMO	PRICE	REMARKS
TANKER	ZIRKU	105,846	2003	KOREA	B&W		10	Chinese buyer
TANKER	SILVER EXPRESS	47,401	2009	JAPAN	B&W		16.5	Chinese buyer
TANKER	HIGH ENTERPRISE	45,967	2009	JAPAN	B&W		16.5	Chinese buyer
TANKER	STAR EXPRESS	45,838	2005	JAPAN	MITSU U		11	Undisclosed buyer
TANKER	ROSITA	38,140	2004	KOREA	B&W	2&3	10	Undisclosed buyer
TANKER	KAITO MARU	4,998	2007	JAPAN	B&W		5.4	Far Eastern buyer

2) CONTAINER, REEFER, ETC

TYPE	VESSEL	DWT	BLT	YARD	M/E	CAPA	UNIT	PRICE	REMARKS
CONT	WILLIAM STRAIT	23690	2009	CHINA	B&W	1740	TEU	12.2	UAE buyer
CONT	WINCHESTER STRAIT	22927	2012	CHINA	B&W	1740	TEU	1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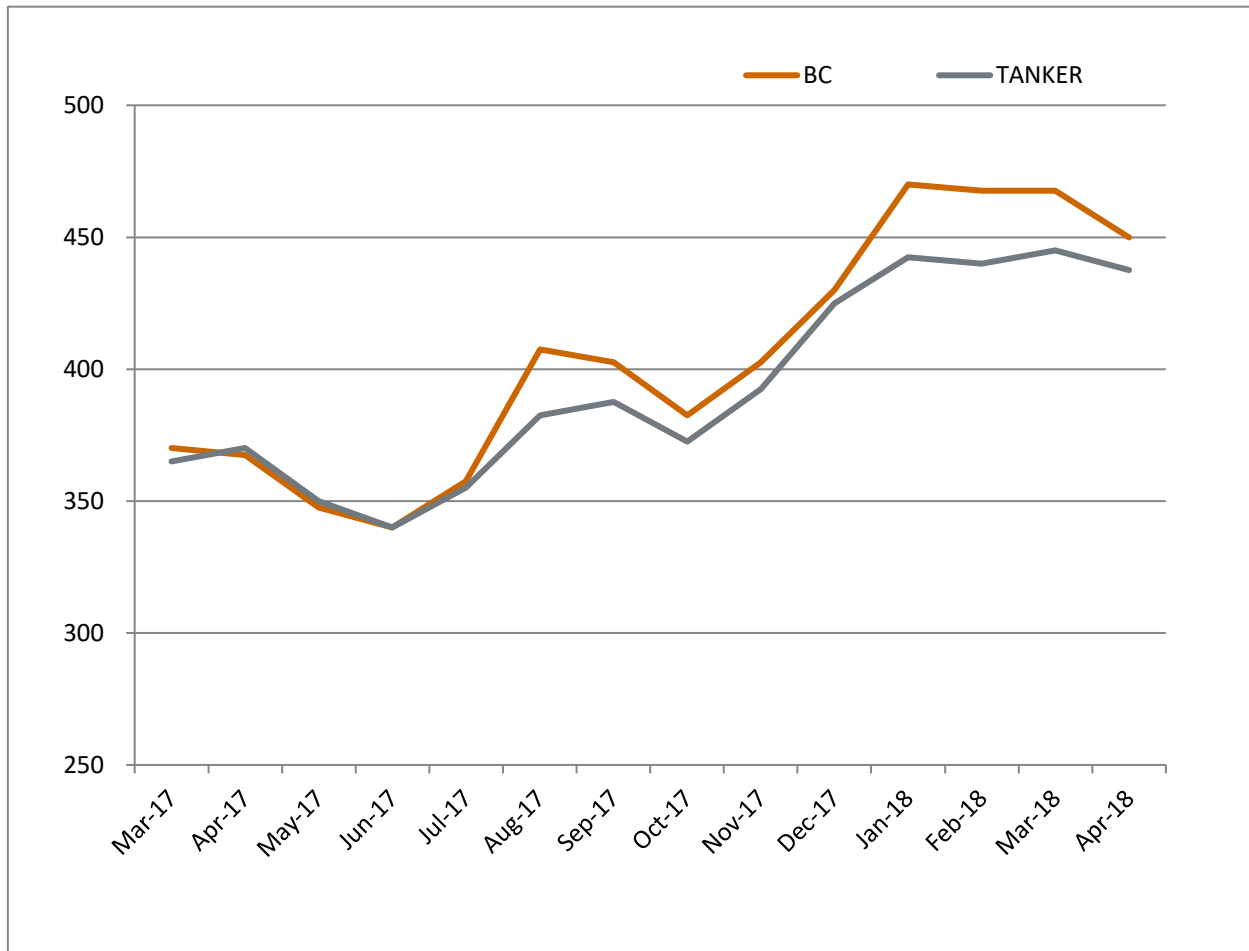


V. DEMOLITION

1) 선가

해체선가 (US\$/LDT)	2016 평균		2017 평균		2018 평균		2017 년 4 월	2018 년 4 월		
		증감율 (전년대비)		증감율 (전년대비)		증감율 (전년대비)		증감율 (전월대비)	증감율 (전년대비)	
TANKER	265.63	-22.1%	365.21	37.5%	441.25	20.8%	370.00	437.50	-1.7%	18.2%
BC	267.71	-20.5%	370.83	38.5%	463.75	25.1%	367.50	450.00	-3.7%	22.4%

◆기준 : 인도해체선시장(USD/LDT), 증감율 (전년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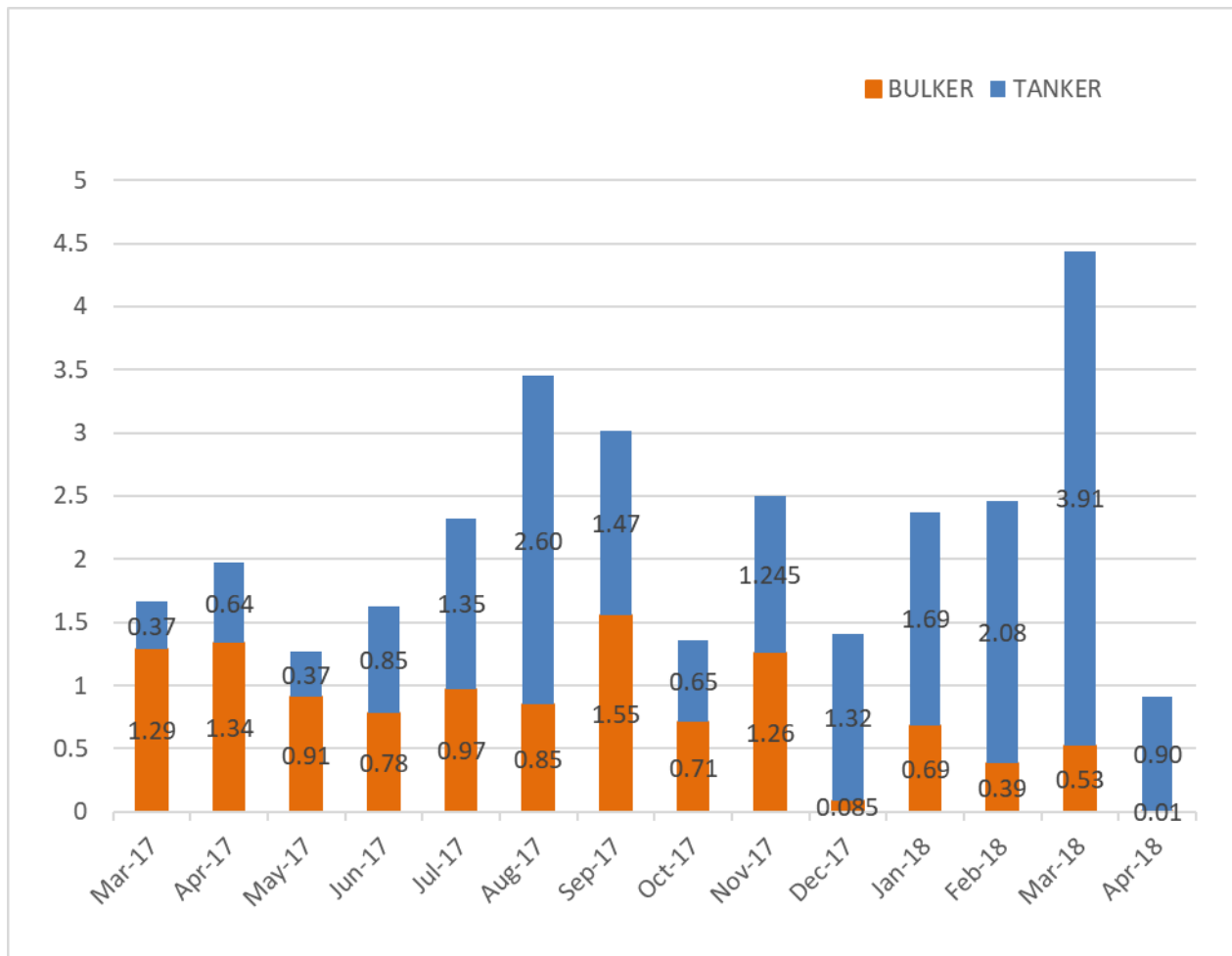


V. DEMOLITION

2) 해체선누적현황

해체선 총량	2017 년		2018 년 누적			2017 년 4 월		2018 년 4 월				
	Million DWT	No.	Million DWT	누적율 (전년대비)	No.	누적율 (전년대비)	Million DWT	No.	Million DWT	증감율 (전년대비)	No.	증감율 (전년대비)
TANKER	11.47	113	8.59	74.9%	73	64.6%	0.64	5	0.90	41.3%	11	120.0%
BC	11.74	292	1.60	13.7%	33	11.3%	1.34	32	0.01	-99.4%	3	-90.6%

3) 해체선총량 (MILLION DWT)



V . DEMOLITION

V -1. Demolition Sales Repo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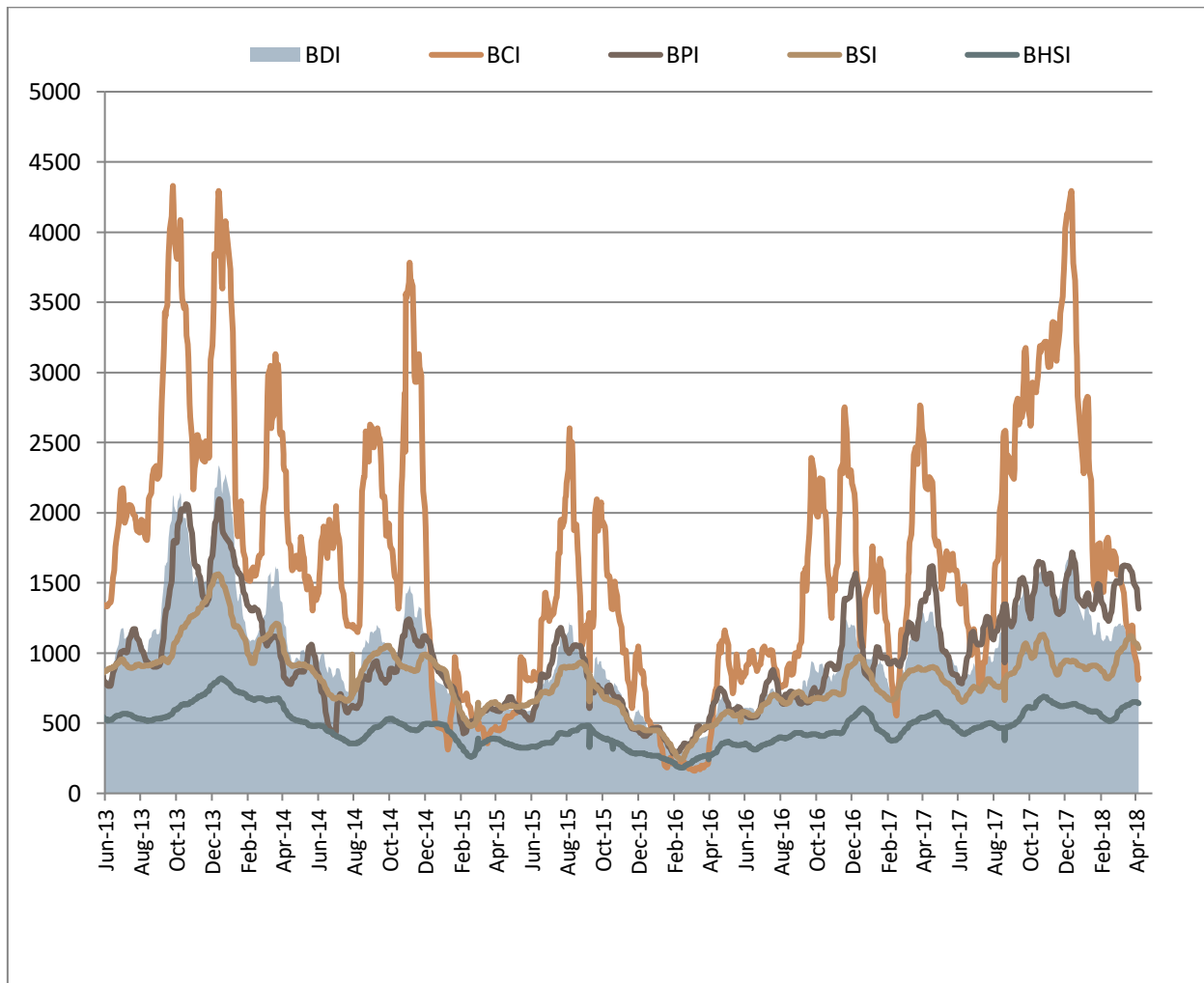
TYPE	VESSEL	DWT	LDT	BLT	YARD	M/E	PRICE (usd/ldt)	REMARKS
BC	DENNY Z	23,270	5823	1989	JAPAN	PIELS	240	AS IS Ghana
MPP	PONTICA	17,069	4510	1983	JAPAN	PIELS	440	Full Sub-Conti option
GC	MIKHAIL LUKONIN	6,221	2655	1981	RUSSIA	Sovie t	420	BANGLADESH
REEFE R	BALTIC PILGRIM	10,621	6237	1992	JAPAN	B&W	415	INDIA
TANKE R	ECOMASTER	92,017	16104	1977	USA	Gen. Elect ric	300	AS IS Piraeus
OIL/C HEM	STOLT MOUNTAIN	39,005	10583	1994	CROATIA	B&W	-	INDIA



VI. KEY INDICATORS

1) Baltic Index

	2018-04-13	2018-04-06	CHANGE	5 Year High	5 Year Low
BDI	1014	948	▲ 66.00	2337	948
BCI	1038	824	▲ 214.00	4329	161
BPI	1351	1317	▲ 34.00	2096	282
BSI	1013	1032	▼ -19.00	1562	243
BHSI	628	643	▼ -15.00	821	183





VI. KEY INDICATORS

2) Bunker Price (USD/TON, 전주대비증감)

(USD/Ton, Change)	Singapore		Rotterdam		Houston	
IFO380	399.50	▲18.50	380.50	▲15.50	378.50	▲17.00
IFO180	425.00	▲13.00	408.00	▲12.50	439.00	▲16.50
MGO	647.50	▲33.50	617.00	▲22.50	620.50	▲15.50

❖ 기준일 : 4 월 13 일 기준

3) Exchange Rate

구분	2018-04-13	2018-04-06	CHANGE
미국달러	1068.70	1059.50	▲9.20
일본엔(100)	996.50	989.03	▲7.47
유로	1317.49	1297.41	▲20.08
중국위안	170.37	168.56	▲1.81

❖ 최초고시, 매매기준율기준

VII. USEFUL INFORMATION

구분	행사명	일시	장소 (주최)	기타
발표회	'물류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사례발표회 개최	5.9(수) 14 시	인천상공회의소 교육장 (대한상공회의소)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민관합동 물류지원센터'를 통한 지원사업의 우수사례 발표와 금년도 사업계획 안내를 위한 설명회
포럼	SHIOWNERS FORUM SINGAPORE 2018	5.22(화)	Marina Bay Sands Expo&Convention Centre (TRADEWINDS)	글로벌트레이딩 허브인 싱가포르에서 트레이더/차터러에게 중요한 이슈에 대해 다루고, 선주들의 관점에 대한 의견을 나눔.



VIII. CONTACT INFORMATION

Neal S.I. Kwon (권순일 상무)

Senior Director

Tel. 070-7771-6410

Mob. 010-9496-0523

snp@stlkorea.com

neal@stlkorea.com (Personal)

Leo J.M. Jung (정재문 부장)

General Manager

Tel. 070-7771-6409

Mob.010-3273-4008

snp@stlkorea.com

leo@stlkorea.com (Personal)

Claire C.W. Ji (지차욱 차장)

Deputy General Manager

Tel. 070-7771-6411

Mob.010-6625-9785

snp@stlkorea.com

claire@stlkorea.com (Personal)



STL GLOBAL Co., Ltd.

101-1401, Lotte Castle President, 109, Mapo-daero, Mapo-gu, Seoul, Korea

Tel: +82-2-776-0840 (Rep.) Fax: +82-2-776-0864 TLX: K35476

E-mail: seoul@stlkorea.com

www.stlkorea.com